

열혈·초짜·괴짜 ... 법정 드라마 '각양각색'

'슈츠' '무법변호사' '검법남녀' 등 멜로·액션 가미된 스토리로 인기 목직한 기준을 벗은 법정극 대세

판사도 혀를 내두르는 열혈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법정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겨버리는 여우 같은 변호사도 있다.

한쪽에는 사기꾼과 손잡은 검사, 또 다른 쪽에는 괴짜 법의관과 의기투합한 검사가 있다.

최근 쏟아지는 법정극이 저마다 '필살기'를 더해 진화, 새로운 매력으로 시청자 이목을 끈다.

◇ 여우형 vs. 좌충우돌형... '슈츠'와 '무법변호사' 인기 미국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고 장동건-박형식 조합으로 주목받는 KBS 2TV 수목극 '슈츠'는 법정극이지만 법정신이 드물다. 그나마 나온 것도 모의법정이었다.

최강석(장동건 분)과 고연우(박형식)가 속한 강연함 로펌에서는 법정에서 이기는 일을 하수로 친다. 진정한 고수는 변론 따위 필요 없이 재판에 들어가 기 전에 이겨야 한다.

사람을 보는 탁월한 눈을 가진 최강석과 괴물 같은 기억력에 인간미까지 갖춘 고연우라는 조합은 의뢰인들이 모든 정보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렇게 팩트와 법리로 무장한 둘 앞에 상대 변호사들이 무릎 꿇는 건 당연지사다.

장동건과 박형식의 외모에 극의 스토리가 가리다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철저한 성과주의의 대형 로펌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재미가 있다.

반면, tvN 주말극 '무법변호사' 속 봉상필(이준기)과 하재이(서예지)는 '폼'과는 거리가 멀다. 인생을 건 복수를 해야 하지만 가진 건 별로 없으니 머리뿐만 아니라 몸도 치열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어머니 유언을 어기면서까지 '기성사'로 돌아온 봉상필은 초장부터 헬기가 날진다. 어머니 법률사무소였던 곳에 있던 일수 회사 사무실을 시원하게 접수해 버리고, 조폭들을 직원으로 삼아 중형무지하는 모습은 만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하재이도 남다르다. 판사가 남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정당방위로 남편을 죽인 여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다가 변호사 자격 정지를 당할 정도다.

이렇듯 초반부터 변호사인지 긴가민가할 정도로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두 사람 덕에 '무법변호사'는 단순 법정극이 아닌 '법정활극'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시청률도 나란히 선전 중이다. '슈츠'는 최근 주춤하긴 하지만 3~4회에서 9%(대일스코리아)를 찍었고, '무법변호사'는 첫회부터 5%를 훌쩍 넘었다.

◇ 사기꾼 vs 괴짜 법의학자... '스위치'와 '검법남녀'

SBS TV 수목극 '스위치'와 MBC TV 월화극 '검법남녀'도 같은 검사 이야기이지만 결이 완전히 다르다.

'스위치'의 백준수(장근석)-오하라(한예리) 검사는 하다하다 사기꾼과 손을 잡았다.

기준 변호사들은 차마 상상도 못 봤을 기성천외 한 방법으로 사기와 수사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드는

사기꾼 사도찬(장근석)과의 공조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 기억의 파편을 바탕으로 금태웅(정웅인)의 정체를 밝혀낸 그의 남다른 추리력은 극을 전개하는 역할을 한다.

장근석은 백준수와 사도찬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을 자유자재로 만나며 호평받는다. 늘 유쾌한 사도찬과 매사 진중한 백준수의 조합이 극 무게를 조절하는 효과도 있다.

한류스타 장근석의 고군분투에 힘입어 '스위치'는 다소 전형적인 전개와 단조로운 선악구도에도 6~7%대 시청률을 유지한다.

지난 14일 시작한 '검법남녀'는 얼핏 한국판 'CSI'(미국 드라마)를 연상시킨다. 초짜 검사 은솔(정유미)이 괴짜 법의학자인 백범(정재영)과 손잡고 범죄의 흔적들을 되짚어가는 게 주요 포맷이다.

'사인 불명은 없다'는 완벽주의의 백범은 천재적인 부검 실력에 더해 현장도 휘어잡는 괴짜다. 게다가 죽은 사람에게는 무한한 관심을 쏟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문제적 인물이기도 하다.

열혈 신인 검사와 10년 차 냉정한 법의관의 만남은 좌충우돌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남다른 조합이 눈길을 끈다.

또 로맨티코미디 요소는 완전히 빠지고 에피소드에 집중했다는 제작진의 설명을 보면 점차 시청자가 주인공들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재미도 출 것으로 기대된다.

◇ '멜로·액션 등 새로운 요소 가미한 법정극 활발'

내 작품 외에도 JTBC 월화극 '미스 함무라비', SBS TV 수목극 '친애하는 판사님께' 등이 대거 중일 정도로 법정극은 국내 드라마의 메인 장르가 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법정 재판 과정을 세세하게 그리는 것만으로도 시청자 눈길을 끌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에 더해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무법변호사' 관계자는 15일 "목직한 법정극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목직한 작품성과 대중성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과제를 얻었다"며 "그러면서 법정극에 멜로나 액션, 복수극 등 새롭게 변주할 요소가 가미되고 극 무게도 예전에 비하면 가벼워진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영화 시나리오를 쓰던 작가들이 드라마 쪽으로 넘어오거나 병행하는 사례도 많아지면서 기존 법정극의 작품성에 더해 존존한 재미까지 확보한 작품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협뉴스

배우 김수미 손맛의 비결은

내달 6일 tvN '수미네 반찬'

배우 김수미가 tvN 새 예능 '수미네 반찬'에 출연해 특유의 손맛과 요리 비법을 공개한다.

tvN은 오는 6월 6일 첫 방송 하는 '수미네 반찬'에 김수미(사진)가 출연해 중식의 대가 여경래, 셰프 최현석, 불가리아 셰프 미카엘 아쉬미노프에게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온 손맛을 가르쳐준다고 15일 소개했다.

셰프들은 또 배운 것을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결합해 특색 있는 반찬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문태주 PD는 "하얀 쌀밥에 소박하고 정갈한 반찬만으로도 배가 부르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께 알리고 싶다. 스타 셰프들의 솜씨와 김수미의 손맛이 만났을 때 생기는 시너지도 또 다른 재미 포인트"라고 말했다.

6월 6일 밤 8시 10분 방송. /연협뉴스



3년만에 돌아온 '히든싱어'

내달 방영 ... 참가자 모집 중

JTBC는 음악 예능 '히든싱어' 5번째 시즌을 오는 6월 방송한다고 15일 밝혔다.

'히든싱어'(사진)는 지난 8일 전인권-양희은부터 강타-케이윌-에일리까지 총출동한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3년 만의 복귀를 알렸다.

국내 대표 가수인 그 가수의 목소리부터 찾아가는 '모창 도전' /연협뉴스

가'가 참여하는 '히든싱어'는 2012년 처음 방송해 큰 인기를 얻었고, 시즌4까지 방영되며 JTBC 최다 시즌을 이끈 대표 예능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 태국, 이탈리아, 미국 등 세계 각지에 포맷도 수출됐다.

제작진은 강타, 김동률, 나일, 린, 박효신, 바다, 비, 에일리, 이승기, 이소라, 이승철, 차이언티, 전인권, 케이윌, 홍진영 등을 모칭할 수 있는 지원자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집 중이다. /연협뉴스

TV 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5 KBS 뉴스광장(광주)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전생애 웬수들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국민의 일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45 KBS 뉴스(광주)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우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징비록(재) 50 UHD 숨터 (재)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0 슈츠 (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민방위훈련특집 전국지진 대비훈련	00 속보이든 TV 인사이드(재)	30 TV속의 TV	55 닥터 365
2	50 한국인의 밤상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30 프리파라 3	00 뉴스브리핑
3	10 역사저널 그날 (재)	00 자동공부학생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스포츠 UEFA 챔피언스리그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우만만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가정의 달 특선만화 보토스 패밀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광주) 1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목 남도에 살았어라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0 KBS 뉴스 7(광주) 35 신노년시대 4부작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하하랜드 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KBS 뉴스 9(광주) 45 KBS 뉴스 9			
10	00 시사토크 '10' 55 숨터	00 슈츠	00 이리와 안아줘	00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로맨스 패키지 1~2부
12	30 ABU 국제공동제작 CARE7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디큐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중국 차츰 기행 - 3부 푸젠, 차의세계화>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아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클램 차우더와 시트러스 관자살러드>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2 08:30 최강장사, 미니특공대 08:45 할랄라 뷔우 09:00 똑딱맨 09:15 엄마 개구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초대석 13:00 지식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재) 14:30 너티너츠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중국 소수민족 음식 기행 3부 은둔의 낙원 봉황고성>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할랄라 뷔우(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2(재) 17:15 엄마 개구리(재) 17:30 두다다롱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하니 1~4 19:00 몬카르(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재) 19:30 EBS 뉴스
19:50 아빠타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 소수민족 음식 기행 3부 은둔의 낙원 봉황고성>	21:30 한국기행 <단팥이라 좋아 3부 우리 집 배구> 21:50 EBS 다큐프라임 <빠> 3부 빠는 살아있다 22:45 국한직업 <정원 만드는 사람들, 테라스 정원가 전원주택 정원>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4:45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6일(음 4월 2일 戊申)

子	36년생 목자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48년생 내일을 위해 아껴두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60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행운이다. 72년생 원인과 과정을 잘 따져 보자. 84년생 치밀하지 않다면 뒤늦게 생길 여지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3, 47	午	42년생 판도가 갑자기 변해버릴 수도 있다. 54년생 미룬다면 결림 돌을 만날 수 있다. 66년생 파격적인 조건이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도록 하자. 78년생 시작은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화열로 가득 차리라. 90년생 너무 경직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12, 60
丑	37년생 평온한 가운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49년생 희망적이다. 61년생 독심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73년생 의욕이 종반해지고 용기가 분출하는 계기가 된다. 85년생 고만하지 말고 처음에 마음 가는 곳으로 임하면 만사가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 75, 32	未	43년생 기다리는 것은 안 오고 상관없는 것만 보이리라. 55년생 정성으로써 최선을 다 하자. 67년생 고비에 와 있으니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79년생 적응하려고 노력 하자. 91년생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속 되었을 때 화가 커진다. 행운의 숫자 : 92, 63
寅	38년생 용기가 절실히 요청된다. 50년생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하는 나라. 62년생 새로운 차원을 접하게 되리라. 74년생 망설이지 말고 힘차게 두드린다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86년생 옛 인연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니 그에 따른 준비를 하자. 행운의 숫자 : 14, 70	申	44년생 옛 일이 괴롭거나 큰일은 아니다. 56년생 뜻은 있으나 동력이 약한 이치이니 힘을 보충해야 한다. 68년생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라. 80년생 때를 맞추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92년생 기존과 신규 간에 균형과 조화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30, 44
卯	39년생 모처럼의 기회이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1년생 길인을 만나리라. 63년생 보람을 느끼리라. 75년생 불확실한 것을 버리고 확실한 것만 취하는 것이 낫다. 87년생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생기면서 바빠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38	酉	45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57년생 실행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목조목 따져 볼 일이다. 69년생 가까스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81년생 점점 복잡한 단계로 접어들다. 93년생 이로우이 전개된다. 행운의 숫자 : 82, 41
辰	40년생 버터 낸다면 견고해질 것이다. 52년생 방만하게 무관심한다면 상실할 수도 있다. 64년생 좋게 하려다가 더 망칠 수 있다. 76년생 학습고대하여 왔던 것을 속 시원하게 처리하게 된다. 88년생 목전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8, 20	戌	34년생 평소의 신뢰 관계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날이다. 46년생 바로 그것이다. 58년생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니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 70년생 처음부터 점검해야겠다. 82년생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충실이 힘써야겠다. 행운의 숫자 : 15, 82
巳	41년생 남에게 말도 못할 가슴 답답한 일이 생기리라. 53년생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니 된다. 65년생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차 호전되리라. 77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능해 될 일이다. 89년생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5, 76	亥	35년생 이미 떠 놓은 당상이니 하등에 불행해 할 필요가 없다. 47년생 전화위복이요, 새옹지마에 비유할 만하다. 59년생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실행해도 무방하다. 71년생 원상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다. 83년생 상황 윤리에 따라라. 행운의 숫자 : 35, 0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